

GS칼텍스, 타이 육상광구에서 원유 발견

GS칼텍스는 전체의 30% 지분으로 참여중인 타이 육상광구에서 대규모 원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됐다고 12월 4일 발표했다.

탐사 1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L10/43, L11/43광구의 첫 탐사정에서만 하루 1254배럴의 원유와 72만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2개의 지층을 발견했다.

광구는 타이 최대 육상유전인 Sirikit 유전 인근에 있는 7651km² 크기의 탐사광구로 GS칼텍스는 7월 광구 지분 100%와 운영권을 가진 일본 MOECO(Mitsui Oil Exploration Company)로부터 입찰을 통해 30%의 지분을 인수했었다.

GS 관계자는 “발견된 원유는 물을 비롯한 기타 부산물이 거의 섞이지 않아 경제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하고 “앞으로 탐사정을 추가하면 많은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GS칼텍스는 향후 광구의 다른 유망지역 추가 탐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탐사 2기가 진행될 2007년 이후 평가시추 작업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면 2008년부터 조기 상업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2/05>